

말은 일에 충실하자

부산 선교부장 이 호 남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교성 130:21)라고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모든 회원과 지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스테이크”라는 한 아기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과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다시한번 감사하며, 또한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라는 한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산모로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이 이를 받쳐들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어린이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성 38:27 참조)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서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로 굳게 결합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신권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회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지지의 표시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도자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약속하는 표시입니다.

셋째,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청지기의 직분을 100퍼센트 완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성 78:22)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어린이를 양육시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주어진 책임을 미룰때 이 어린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때 모든 보조 조직 및 프로그램은 각기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째, 우리는 지난 연차 대회에서 킴블 대관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정직한 심일조를 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을 표하는 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을 모든 이웃과 친지들에게 알려서 함께 나눌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킴블 대관장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음의 폭을 넓히라”고 선교 사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만이 향유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라는 말씀을 생활에 옮길 때 우리는 이곳에 또 하나의 아니 수많은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조직이 우리의 목적이기 아님을 인식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지도자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계명대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고, 말일에 회복된 아름답고 완전한 이 복음을 모든 이웃과 친지들에게 나눌 수 있을때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승영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있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범대로 생활하는 자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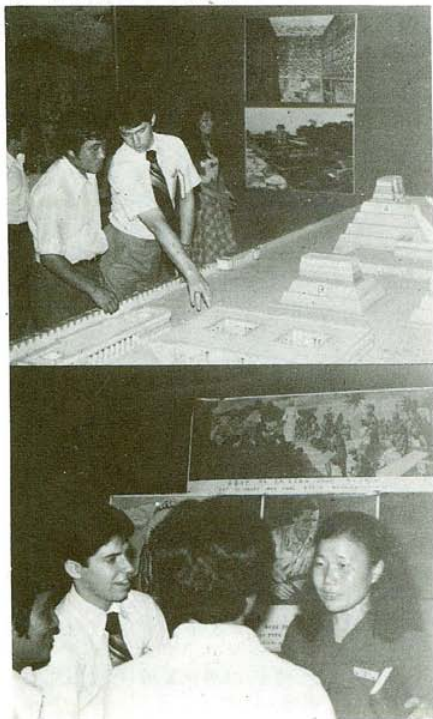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부산 선교부 “멕시코의 밤” 개최

지난 8월 15일 부산 선교부는 조선일보 부산 지사와 공동으로 “멕시코의 밤”을 부산 대연동 레오파드 테니스 구장에서 개최했다. “멕시코 문명 3000년전”이 전시되고 있는 이곳에는 1500여명의 회원 및 일반 시민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는 부산 지역의 선교사들이 재미있는 멕시코 민요와 연극을 보여주었고 신학 연구원 교수이신 도 길희 교수와 이호남 선교부장의 멕시코 문명에 대한 특별 강연도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역사속에 묻혀진 멕시코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물문경의 진실성을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소개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소년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춘천의 봉이산 아래 자리잡은 강원 중학교에서 선교 사업을 주제로 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일 선교 사업을 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선교 사업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청소년들은 마지막 날의 간증 모임에서 선교 사업의 고충과 기쁨에 대해 간증했다.

춘천 지부에서 참석한 7명의 회원들은 서울로 떠나는 회원들을 전송하기 위해 역까지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3박 4일 동안에 깊어진 정을 못내 아쉬워 했다.



서울 스테이크 소년 대회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마석에 있는 입석 국민학교에서 서울 스테이크 소년 대회를 가졌다. 교리와 성약 18편 15절을 주제로한 이 모임에서는 모두 93명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 동안에 장기 자랑, 취사법, 응급 처치법, 간이 측정법 등을 배웠고 하이킹, 캠프이어 등을 통하여 우정을 만끽하였다. 하 근수 서울 선교부장님은 이 대회에서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인근 주민들은 회원들의 모범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주민들과의 운동 모임을 통하여 가깝게 되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소년 대회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서 스테이크는 경기도 용인군 대지 국민학교에서 소년 대회를 가졌는데 이 대회에는 청소년 114명과 임원 및 고문 43명이 참석했다. 엘마서 34:32를 주제로 갖은 이번 대회에서는 에이스 활동, 무용, 합동 가정의 밤, 신학·문학 세미나, 연극, 체육, 신앙 강화 등의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협동 정신과 형제애를 배울 수 있었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자기의 간증을 보다 더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쌓을 수 있었다.



서울, 서울 동 스테이크 청년 대회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가 합동으로 가졌다.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설성 국민학교에서 약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여한 가운데 '79년도 청년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서 한 인상 장로께서 선교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김 종열 부장과 서 희철 형제, 신 일동 감독이 각각 결혼관, 종교 교육에 대하여 감명 깊은 말씀을 전해 주었다. 특히 대민 봉사활동으로 의료, 교육, 탁아소 봉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도왔다. 행주 2리 마을 회관에서 "영농을 통하여 잘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현대의 과학 영농법과 농촌 가정 교육에 대하여 김 병희 형제가 2일간 8시간을 강의하였



다. 또 물몬소개 영화를 통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민들에게 소개하였고 탁아소를 운영하여 마을 어린이를 상대로 초등협회를 가졌다. 임 경호 이천군수를 비롯한 마을 지도자들이 뜨거운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가진 간증 모임에서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대회에서 감사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대회

지난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대회가 경기도 용인군 대지 국민학교에서 청년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엘 37:35)로 모든 형제/자매의 발전을 중심으로 무용·음악·신학·문학세미나, 체조와 특히, 첫날 갖인 민속제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젊은이들의 힘을 과시했다.



신간 서적 안내 KOREAN CHARACTERS

(값 6,000 원)



저자는 일찌기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부르스 케이 그랜트 형제이다. 그랜트 형제는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지금의 서울 서 스테이크 제2와드인서부 지부(전이름)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형제이다. 한국 말을 유창히 잘 하기로 이름난 성도이다.

그는 지금 유엔군 사령관 특별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말을 익히는데 기초가 되는 한자를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한자를 찾는 법, 한국 사람의 성씨, 쉽게 혼동되는 한자 등을 영어로 번역하여 놓았으며, 선교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았다.